

음대 미디어링 조차석 통해서

*보통 선거라고 하면 크고 굵직굵직한 얘기들. 공약들이 난무하는데 비해 작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같은 여자로서 공감이 간다. '작지만 확실한 행복'이라는 모토 또한 매우 마음에 든다.

*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가볍다. 선거를 보는게 아니고 그저 풍자식 글을 보는 것 같다.

*로그인 연세총여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맞긴 하지만 '연대안의 명소를 찾아라'를 보면 그저 선거를 위한 글, 주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. 그래도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공감이 갈 수도 있을듯...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주제는 좋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피상적인 것 같다. 투표자들로부터 이 선본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주장과 공약이 있으면 좋겠다.

*쉽게 다가설 수 있는 느낌을 주는 선본이다. 여자로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잘 포착해낸 것 같아 정이간다.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.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고 일상적인 것들을 내세운 것은 좋지만 그게 끝까지 성공하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.

*'중도앞 여학생 품평회 자리' '공대앞 남근바위'...말하자면 피해 의식이 있는 듯 하다.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남학생들이 훨씬 많은데 소수의 남성우월주의자의 생각을 위주로 남성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 같아 공감도 안가고 기분이 나쁘다. 그런 예들이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여성비하를 만들어낼수도 있지 않을까..하는 걱정이 된다.

*전체적으로 글에 요점이 없는 것 같다. 작고 일상적인 것이 좋긴 하지만 너무 붕 뜬 느낌이 든다. 자료가 이 선본을 지지하는데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.

*선거하면 느껴지는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편안한 느낌을 주서 좋다.

▣ 비무 감성에 의존한 면은 시정했으면 좋겠다.

*이 선본에는 인재들이 많은것 같다. 다만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해주는데 좀더 주력했으면...

* 로그인 연세총여는 페미니즘운동을 하노팀이라 적목지지.

부모님 함께쓰기도 개인적으로 매우좋아하지만 의외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.

중요한 것은 부모님함께쓰기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수 있는게 아닐까..

또한 무조건적 여성, 남성 분리나

* 모든 공약이 주장적이라 잘 와닿지 않는다. 좀더 구체적이었으면... 좀더 진지했으면...

주장하는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.

'논지방'을 총여학생회에 있어, 또한 연세여성 모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.

그럼에도 논지방은 잘 모르는 여학생들이 너무 많다. 논지방에대한 많은 배려필요.

* 큰 강의실에서 유세를 하면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갖고 대충 듣는다.

'개인적'인 정리가 가장 유리한듯. 전라번호를 입수해서 짧게라도 로그인선본의

주장들을 이야기하고 이해시킨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 같다.

* 어차피 총여학생회 투표권은 여성들에게 있으니까 여성을 위주로 공약한다면...

특히 음대, 생과대 등 여자들이 많은 ~~이~~ 단대들 중심으로 남학생들등안

▣ 신경써서 유세를 한다면 좋은것 같다.